

반려동물의 모든 것 ‘임실N펫스타’

임실군, 5월 3~5일 오수의견공원에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풍성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릴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2025 임실N펫스타가 더 특별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로 1500만 반려인들을 기다린다. 2025 임실반문의 해와 만나는 두 번째 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 하는 임실N펫스타는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치즈와 한우 등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된다.

3일간 오수의견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확대되고 차별화된 특별함을 선사한다.

먼저 지난해보다 많은 전국의 12개 반려동물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찾는다.

특히 전국의 반려동물과 가족들에게 영화제를 연상시키며 멋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반려동물 패션쇼, 반려동물 토크쇼, 이·미용 체험과 의료센터, 한방센터 등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기 프로그램인 반려동물 토크쇼도 진행된다. 일명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강형욱 대표와 이웅중 교수, 설재현 수의사와 함께 김셋별 방송 리포터가 진행하는 의학 상담 토크쇼도 마련됐다.

축제 때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토크쇼는 반려동물 가족들의 궁금증 해소와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동물 축제장의 주인공인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편히 쉬고, 미용 체험 등 상시 할 수 있는 그린 원터와 어릴리터 체험 공간을 한층 확충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릴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2025 임실N펫스타가 더 특별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로 1500만 반려인들을 기다린다.

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킨다. 이 외에도 펫보험과 애견용품, 간식 등 22여 개의 펫박람회 업체가 입점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 및 상담할 수 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미식, 먹거리 역시 풍성하다. 임실 숙성치즈와 무가당요거트 등 관내 유제품, 임실치즈피자,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한우구이 등 한우 먹거리까지 준비된다. 여기에 향토먹거리장터에서 흥어 무침, 돈가스, 추어탕, 돼지주물럭 등의 다양한 음식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도 빠질 수 없다. 치즈아이스크림과 치즈붕어빵, 수제치즈햄버거 등 관광객의 맛의 기쁨을 더해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정상급 가수 빅3 출연으로 일찌감치 팬들의 열기로 SNS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축제를 찾는 전국 관광객을 위해서 5월 3일 개막식

에 이찬원과 손태진, 강혜연, 박진도, 오로라 등이 개막 축하공연을 4일 최갑석 가요제에 김희재, 구창모, 전종혁이 출연하여 눈과 귀에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를 앞세운 임실군은 전국 최초 공공 반려동물 정보시스템인 오수펫추모공원과 반려동물 지원센터(오수반려누리), 반려동물 동반 캠핑이 가능한 오수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을 구축 완료했다.

심 민 군수는 “오수 의견의 역사와 임실을 알리는 소중한 축제로 전국 반려인과 관광객들에게 행사 참여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인 사람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노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춘향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본선 진출팀 확정… 내달 3~4일 경합

남원시가 주최하는 제95회 춘향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본선 진출팀이 확정되며, 5월 3일과 4일 2일간 남원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서 본선이 펼쳐질 예정이다.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5.3.)과 K-POP 커버 댄스 경연(5.4.)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창작, 스트릿, 힙합, K-POP 커버 등을 아우르는 춤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겨룰 수 있는 경연의 장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은 23팀, K-POP 커버 댄스 경연은 15팀이 신청하였으며, 영상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각 부문 12팀이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 본선 진출팀



은 5.3(토) 14시부터 경연을 통해 최종 3팀이 대상(200만원),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을 수여하고, K-POP 커버 댄스 경연 본선 진출팀은 5.4(일) 14시부터 경연을 통해 최종 3팀이 대상(100만원), 최우수상(70만원), 우수상(50만원)을 수여하며, 경연 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무형유산·전통문화 지원 기반 마련

남원시의회 손증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손증열 의원

남원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증열(대표발의)·김갑술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증열 의원발의)이 통과됐다.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

고자 제정, 주요 내용은 무형유산 지원과 감차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손증열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종사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한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전통기술 분야 우수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법적 기반을 마련,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영일 순창군수는 2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부인재원 주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심민 임실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문제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세대만의 책임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인구문제 해결



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일 군수는 이번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을 지목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순창서 초·중·고 졸업하면 최대 200만원 지원… 상반기 신청 접수

순창군이 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 기본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지역 내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이 사

업은 매년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육천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형태로, 대학에 재학 중인 순창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등록금 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큰 특징으로, 매년 꾸준한 신청률을 기록하며 지역 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를 졸업한 대학생 중에서, 2025년 상반기 공고일(4월 30일) 기준 본인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3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순창의 젊은 인재들이 훌륭한 역량을 길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보급 물량은 총 10대이며, 보급 여건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원 차량은 신규 구매 후 등록하는 전기이륜차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로 대당 140~3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가능하거나, 동일 기간 임실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민은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한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지일 신청서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임실군,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성공적 마무리

임실군이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5회, 62시간에 걸쳐 진행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초농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신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상식(귀농·귀촌 성공 전략)을 주제로 시작해 △토양 및 작물 생리 △귀농인이 알아야 할 세무·법률 지식 △농기계 안전 사용 이론 및 실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성과 현장감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임실=전홍영 기자

